

설날 추도예배 ❀

❀ 설 날 추 도 애 배 ❀

· 찬 송		다 같 이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찬 469),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 495)	
· 기 도		말 은 이
· 성경말씀	골 3:1-4	인 도 자
· 설 교		인 도 자
· 기 도	성도의 소망	인 도 자
· 찬 송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 539)	다 같 이
· 주기도문		다 같 이

성도의 소망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에 것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땅에 것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을 모으며, 건강을 위하여서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은 위에 것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 속해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위에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위에 것을 찾으라는 것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나 목표,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항상 마음에는 천국 시민의 마음을 품고 하늘나라의 시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왜 하늘에다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분은 우리의 주인이며 모든 성도의 소망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결국에 인생의 나그네길을 마감하고 가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모든 세상과 역사의 종착역이 하늘나라입니다. 세상은 끝이 있지만 위에 것은 영원합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하늘나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곧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과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생명을 얻었으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